

봄마중 가는 뚜벅이, 걷고 걷는다?

바야흐로 기다리던 봄이다. 겨우내 잠들었던 듯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활기를 되찾는 계절이다. 어려운 경제 사정과 추운 날씨 탓에 멀리 길을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도 온기로 충만한 봄의 유혹에는 이겨내지 못할 듯싶다. 봄을 맞이해 산야에 핀 청초한 야생화와 발아래로 시원스레 펼쳐지는 풍경을 만나기 좋은 도보 여행지를 정리했다.

글/박상현 기자 · 사진/연합뉴스DB센터



세계적인 명저 '월든'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걷기를 예찬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는 일체의 물질적 근심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린 채 한가로이 걷지 않으면, 건강과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는 녹이 슬어버릴 것 같다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사실 비행기나 자동차, 기차 등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여행의 마지막은 '도보' 이기 마련이다. 발걸음을 떼면서 낯선 풍광을 눈에 담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비로소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 탓이다. 게다가 특별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고, 그다지 힘들지도 않으며, 비용도 들지 않으니 가장 좋은 여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봄을 온몸으로 느끼기에는 '걷기' 만 한 것이 없다.

한반도에서 동장군은 북쪽에서 출현해 아래로 내려가지만, 봄기운은 남쪽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날이 풀리면 상춘객들은 봄비람 난 청춘들 처럼 남녘으로 길을 나선다. 3월 말부터는 각지에서 꽃이 만발해 걷기 여행을 떠나기에 좋다.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을 걸다 보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음미하며, 피부로 와 닿는 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고흥 팔영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라남도 고흥은 인근에 위치한 보성과 여수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도해의 경치가 무척 아름다운 곳이다. 흔히 여덟 가지 특산물과 아홉 가지의 맛, 열 가지의 풍경이 발길을 붙잡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8품, 9미, 10경'의 고장이라 불린다. 팔영산(608m)은 고흥의 10경 중에서 단연 첫순에 꼽히는 명소이다.

고흥에서 가장 높은 산인 팔영산은 성주봉을 중심으로 유영봉, 팔응봉, 월출봉, 천주봉 등 8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산세가 험하고 기암괴석이 많은데다, 푸른 바다 위에 섬들이 떠 있는 절경 덕분에 등산객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날이 좋을 때면 멀리 일본 쓰시마 섬이 시야에 들어오기도 한다.

팔영산 트레킹은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와 함께 호남 4대 사찰인 능가사에서 시작된다. 삼국시대에 '보현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임진왜란 당시 소실됐고 중창 과정에서 능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능가사에서 첫 번째 봉우리인 유영봉을 지나 마지막 봉우리인 적취봉까지 능선을 종주하고 능가사로 돌아오면 트레킹은 끝난다. 능가사 대신 굴참나무, 갈참나무, 고로쇠나무 등 참나무가 많은 휴양림을 기점으로 선택해도 된다.

고흥 팔영산이 봄에 좋은 이유는 탁 트인 조망과 남도의 먹을거리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 봉우리를 오르내릴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남해가 매력적이다. 1박 2일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령 80년이 넘는 삼나무 3만여 그루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외나로도(1410m)에 올라도 좋다.

코스 능가사 ▶ 흔들바위 ▶ 1봉 ▶ 2봉 ▶ 3봉 ▶ 4봉 ▶ 5봉 ▶ 6봉 ▶ 7봉 ▶ 8봉 ▶ 탐재 ▶ 능가사(4시간 30분 소요)
가는 법 광주나 순천에서 고흥으로 향하는 직행 버스에 탑승한다. 과역에서 하차해 능가사 행 버스로 갈아타면 된다. 과역에서 능가사까지는 15분이 걸리며, 하루 6번 버스가 오간다. 버스 운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능가사(061-832-8090)에 문의한다.
주변 볼거리 녹동항과 소록도, 금탑사, 보성 녹차밭



사진/고흥군청 제공



사진/고흥군청 제공



사진/고흥군청 제공

강화 해안도로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는 바다와 산, 문화유산을 고루 갖춘 여행지이다. 수도권에서 1시간 내외면 닿는데다, 주위에 석모도나 교동도 등 자그맣고 조용한 섬이 떨어져 있어 주말에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 봄철이면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밴댕이를 맛보려는 식도락가들로 붐비기도 한다.

김포시와 대면하고 있는 강화도의 동쪽에는 걷기 좋은 해안도로가 나 있다. 강화도의 명산인 마니산(468m)에 오르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에게 적당한 트레킹 코스이다. 강화도와 김포를 잇는 두 개의 다리인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사이를 산책하는 것인데, 여기저기에 사연이 서린 역사 유적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다.

사실 강화대교 바로 옆의 강화역사관에서 초지대교 인근의 초지진까지 연결되는 길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조선 후기 외세와 싸웠던 전적지를 탐방하는 코스이다. 걷는 도중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이따금 나타나는 돈대와 보, 진은 모두 방어를 위해 건설된 시설이다. 본래 바다로 밀려드는 외국 선박을 요격하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안가의 모든 유적에 들을 필요는 없고, 휴식이 필요할 때 가보면 좋다.

한편 강화읍내에도 적지 않은 볼거리가 숨어 있다. 39년 동안 고려의 왕궁이 있었던 고려궁지, 한옥으로 지어진 성공회 강화성당,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살았던 용흥궁 등을 걸으면서 구경할 수 있다.

코스 강화대교▶연미정▶강화역사관(갑곶돈대)▶용진진▶오두돈대▶광성보▶덕진진▶초지진(3시간 소요)
가는 법 서울 신촌에서 강화읍 터미널까지 오전 5시 40분부터 10~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며,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강화읍에서 강화대교까지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초지진에서는 군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자주 다니지 않으므로 터미널(032-934-9811)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주변 볼거리 마니산, 전등사, 석모도



정선 굴암 마을 강원도의 남동쪽에 자리 잡은 정선은 산골이다. 첩첩한 산중에 있는지라 농사를 지을 만한 평평한 땅이 많지 않다. 반대급부로 정선에는 사시사철 등산객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명산이 산재해 있다. 5월 말에는 두위봉(1천465m)의 철쭉, 8월 말에는 함백산 만항재(1천330m)의 아생화, 9월 말에는 민둥산(1천119m)의 억새 등 걷기 여행의 소재도 다양하다.

여전히 날이 쌀쌀한 4월, 강원도 방언으로 '뽕대'라고 하는 동강의 암벽에서는 희귀식물인 동강할미꽃이 모습을 드러낸다. 굴암리 부근에서 눈에 띄는 '동강할미꽃'은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핀다. 정선의 석회암 틈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외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고유의 식물이다. 일반적으로 할미꽃은 아래쪽을 향해 꽃이 피는 데 비해, 동강할미꽃은 다른 꽃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핀다. 꽃은 자주색, 분홍색, 흰색을 띠며, 꽃과 줄기에 하얀 솜털이 뽁뽁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강할미꽃 트레킹은 절벽에서 보물을 찾는 격이다. 1997년 생태사진가가 세상에 소개한 뒤, 동강할미꽃은 수많은 여행자들이 위해 몸살을 앓았다. 그 결과 본래 많지 않았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재는 굴암 마을 주민들이 보존회를 조직해 꽃을 보호하고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동강할미꽃 축제는 4월 3일부터 이틀간 계속된다.

굴암 마을에서 동강 건너편으로는 나팔봉(693m)이 있다. 나팔을 거꾸로 엮어놓은 듯한 모양새 탓에 나팔봉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산정에 다다르면 굽이치는 동강과 굴암 마을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코스 굴암리 동강할미꽃 트레킹과 나팔봉 양치재 걷기(3시간 소요)
가는 법 정선읍에서 굴암리까지 하루 4회 버스가 다닌다. 개별여행보다는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승우여행사(www.swtour.co.kr, 02-720-8311)가 동강할미꽃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변 볼거리 정선 5일장, 아우라지, 레일 바이크, 하이원 리조트



여수 영취산 불교에서 영취산은 석가모니가 법화경과 무량수전을 강의했다고 하는 산이다. 그래서인지 국내에는 영취산이 많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 양산과 울산광역시에 걸쳐 있는 영남 알프스의 영취산(1천59m)과 전라남도 여수에 자리한 영취산(510m)이 유명하다. 여수 영취산은 식목일을 전후해 만발하는 진달래가 명물이다. 예부터 여수 사람들이 신령한 산으로 인식해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4월 초순에 진달래가 피어나면 능선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든다. 그다지 높지 않아서 여행지로 조명 받지 못하던 산을 전국에 알린 일등공신도 30~40년생 진달래이다.

영취산에서 진달래가 가장 많이 군집해 있는 지역은 일명 450m 봉우리이다. 임도삼거리에서 출발해 역새 평원을 지나면 나타나는 450m 봉우리부터 진례산 정상까지는 좌우에서 진달래가 길손을 맞이한다. 겨울에는 갈색으로 뒤덮여 있던 산등성이에 새빨간 진달래가 무리를 지어 꽃망울을 터뜨리면 유난히 강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노약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상암 부락길로 올라 봉우재를 통과해 영취산 북사면의 진달래를 감상해도 된다. 영취산 정상에서는 여천공단과 광양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한편 여수시에서는 진달래 개화시기에 맞춰 축제를 진행한다. 올해는 진달래가 절정을 이룰 4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영취산 일원에서 풍물굿, 화전 만들기, 시화전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코스 임도삼거리▶역새 평원▶진례산 정상▶도솔암▶봉우재▶영취산▶흥곡사(4시간 소요)
가는 법 여수 시내에서 흥곡사로 가는 52번 버스나 삼암으로 향하는 68, 75, 76번 버스에 탑승한다. 52번 버스는 오동도에서 오전 7시 15분부터 오후 9시 15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하며, 나머지 버스는 하루에 5차례 운행된다. 자세한 버스 운행 정보는 여수시청 홈페이지(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변 볼거리 오동도, 향일암, 진남관

완도 청산도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인 그레베 인 키안티에서는 1999년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날드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느리게 살기' 운동이 전개됐다. 이곳에서는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문명의 이기인 백화점, 대형 할인점, 자동차가 차츰 지취를 감추었다. 그 결과 자연과 함께하는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게 된 그레베 인 키안티에는 '슬로시티'라는 멋진 수식어가 붙었다.

이제 슬로시티는 12개국 101개 도시로 늘어났다. 국내에서는 2007년 12월에 신안 증도, 담양 창평면, 장흥 유치면, 완도 청산도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시티에 가입했다. 완도 앞바다에 떠 있는 청산도는 인구 5만 명 이하, 아름다운 경관,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슬로시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섬이다.

청산도는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의 배경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드라마 제목처럼 봄, 특히 4월에는 셋노란 유채꽃과 바람에 넘실거리는 청보리가 어우러져 매우 매력적이다. 청산도에서는 항구에서 출발해 섬을 일주하며 걸어도 되고, 마을의 구불구불한 돌담길을 산책해도 좋다. 섬의 남쪽에는 매봉산(385m), 북쪽에는 대봉산(334m)이 솟아 있어 등산도 할 수 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4월 18일부터 이틀간 신지도와 청산도에서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첫날은 신지도, 둘째 날은 청산도에서 열리는데, 청산도에서는 항구를 떠나 서편제 고개, 봄의 왈츠 세트장 등을 지나 항구로 돌아오는 걷기 코스가 마련된다. 청산도 축제 참가자 중 선착순 700명에게는 왕복 배편이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은 홈페이지(www.slowcitywando.com)에서 할 수 있다.

코스 청산항▶서편제 고개▶돌담길▶화랑▶청산항(2시간)
가는 법 완도 여객터미널에서 청산도로 가는 카페리가 하루 4차례 다니며, 약 50분이 걸린다. 출항 시각은 자주 바뀌므로, 여객터미널(061-552-0116)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주변 볼거리 신지도, 보길도



남해 가천 마을

동백과 매화를 시작으로 피어나는 봄꽃은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로 이어지며 대지를 알록달록하게 채색한다. 하지만 꽃은 화무십일홍이란 고사처럼 오래지 않아 시들어버린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슴까지 상쾌하게 해주는 연둣빛 잎사귀들이 돌아난다. 여행지 중에는 꽃이 피는 초봄보다 신록이 우거지는 늦봄이 더욱 좋은 곳이 있는데, 남해 가천 마을도 그러하다.

50여 가구가 살아있는 가천 마을은 지명보다 산비탈을 개간해 층층이 만든 계단식의 '다랭이논'으로 더 이름났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경사지에 생김새가 다른 크고 작은 논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는 마을을 내려다보면 조상들의 고집과 억척스러움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가천 마을에서는 오늘날도 소와 쟁기를 사용해 농경을 하는데,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서 해안가에 기댄 소촌의 고즈넉함을 즐기며 걸어도 좋다.

가천 마을의 뒷산인 설흘산(488m)은 남해에서 일출 경관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어서 가천 마을을 출발해 되돌아오는 데 2시간 내외면 충분하다. 오르막을 가다 보면 육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만과 '구운몽'을 저술한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였던 노도에 눈길이 간다. 반대편으로는 여수의 돌산도가 내려다보인다.

봉수대의 흔적이 있는 정상은 설흘산에서도 해돋이가 압권인 곳이다. 왜구의 침입을 감시하던 봉수대가 자리했던 터라 전망은 탁월하다. 4km 정도의 산행이 짧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정상에서 방향을 틀어 사촌해수욕장이 있는 선구 마을로 내려가면 조금 더 오래 걸을 수 있다.

코스 가천 마을 ▶ 응봉산 ▶ 설흘산 ▶ 가천 마을(1시간 30분 소요)

가는 법 남해읍에서 가천 마을로 향하는 버스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5차례 정도 운행된다.

가천 마을에서 남해읍까지는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버스가 다닌다.

주변 볼거리 상주해수욕장, 금산 보리암



사진/승우여행사 제공



사진/가천 마을 제공

통영 옥지도

독특한 이름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옥지도는 한려수도의 끝자락에 퍼져 있는 40여 개의 섬을 아우르는 옥지면의 본섬이다. 옥지도(欲知島)의 한문을 풀어보면 '알고자 하는 섬'이라는 뜻이 된다. 면적이 12.6km², 해안선의 길이가 30km에 달하는 큰 섬으로 과거에는 한려수도의 고깃배들이 정박하는 포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영의 다른 섬인 한산도, 매물도, 비진도가 이미 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반면, 옥지도는 아직 덜 알려져 있다. 통영에서 배를 타면 연화도를 거쳐 옥지도에 이르게 되는데, 거대한 바위가 솟아난 형상을 하고 있다.

옥지도가 걷기에 좋은 이유는 관광객으로 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명승들과는 달리 한적하고 평화로운 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여유롭게 거닐 수 있다. 옥지도에서 걷기 여행의 백미는 천황산(392m)으로 부두에서 출발해 일출봉, 대기봉, 악과봉 등을 경유해 내려오는 12km 코스가 미려해 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가벼운 등산을 선택한다.

옥지도에서는 산행 외에도 해안 도로를 따라 걷는 트레킹이 가능하다. 산허리를 휘둘러 나 있는 약 20km의 길에서는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띈다. 기암괴석과 해변이 조화를 이루는 경치가 길을 따라 계속된다. 또한 동항 마을 뒤에는 모밀잣밤나무 100여 그루와 상록수들이 모여 있는 숲이 위치해 있다.

사실 옥지도는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좋은 여행지이다. 감성돔을 비롯한 자연산 생선이 잡히고, 굴과 김을 양식하는 등 먹을거리도 풍부해 언제 방문해도 좋다.

코스 부두 ▶ 혼곡 ▶ 새천년기념탑 ▶ 마당바위 ▶ 대기봉 ▶ 태고암 ▶ 부두(2시간 소요)

가는 법 통영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옥지도로 가는 배가 다닌다. 옥지도까지는 1시간 내외가 걸리는데, 배의 출항 시각이 자주 바뀌므로 미리 옥지해운(www.yokjshipping.co.kr)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주변 볼거리 총렬사, 청미문학관, 전혁림미술관



사진/울진군청 제공

울진 금강송 군락지

백두대간의 태백준령 동쪽의 동해를 마주한 울진은 지형의 크기나 산의 높이에 비해 골짜기가 많고 짜기로 소문난 지역으로 아직도 '심산유곡(深山幽谷)'이 곳곳에 남아 있는 오지다. 예부터 '진귀한 보배가 많은 곳'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울진에는 해안가나 강가, 산속 어디든 소나무가 울창하다. 그중 소광리 금강송 숲은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로 2000년에 산림청이 주최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는 면적이 2천247ha로 이곳에는 520년 된 보호수 두 그루와 한국을 대표하는 소나무로 지명된 350년의 미인송, 200년이 넘는 노송 8만 그루 등 모두 1천284만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1959년 육종림 지정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됐던 곳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이 지난 2006년 7월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에코투어'란 이름으로 일반에 개방했다.

금강송 군락지는 불영계곡의 원류인 대광천을 따라간다. 불영사를 지나 36번 국도상의 광천교에서 우회전해 917번 지방도로로 접어들면 대광천 계곡이 눈을 즐겁게 한다. 콘크리트 포장길과 비포장길을 따라 16km 정도 가다 보면 차단기가 내려져 차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금강송 군락지다. 임도는 봉화군 석포면과 경계인 샷갯재 능선을 넘는데 산림청 차량 외에는 일절 차가 다닐 수 없어 트레킹하기 좋다.

금강송 야외전시관을 지나면 길 옆으로 수십m씩 하늘로 짙게 뻗은 금강송들이 도열하듯 서서 입산객을 맞는다. 진한 솔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고, 들이신 숲 기운이 머리까지 맑게 한다. 금강송은 타닌, 페놀 등 방향성 물질을 발산해 숲길을 걸으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도 좋다.

코스 임도와 계곡으로 이어진 금강송 산책로는 모두 3개로, 전체를 둘러보는 데 2시간 정도 걸린다.

가는 법 울진을 찾아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만중IC에서 중앙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서안동 나들목에서 내려서 안동을 지나 34번 국도를 타고 불영계곡 쪽으로 가거나, 영동고속도로를 강릉까지 가서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동해IC에서 7번 국도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가면 된다.

주변 볼거리 불영사, 불영계곡, 성류굴, 내앞마을

제주도 거문오름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는 '올레'라는 길이 있다. 거리의 대로에서 집으로 통하는 좁은 골목길을 지칭하는 올레에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 있다.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서는 올레를 걷는 여행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까지 12개의 코스가 개발돼 있다. 첫 번째 올레 트레킹 코스는 성산일출봉 근처의 시흥초등학교부터 광치기 해안까지의 15km이며, 마지막 구간은 화순해수욕장에서 하모해수욕장까지의 14km이다. 각각의 코스를 걷는 데는 4~7시간이 걸리며, 저마다 특색이 다르다.

제주도의 기생화산인 '오름'도 봄철 도보 여행지로 적합하다. 제주도에 368개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중 섬의 동북 사면에 위치한 거문오름(456m)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있다. 거문오름에는 경사를 따라 북쪽으로 흘러내린 7km 길이의 용암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지표면 아래에는 용암이 식으면서 생성된 동굴이 있다.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거문오름에서는 산책하듯 거닐 수 있다. 난대식물과 온대식물이 공존하고, 다른 오름에서는 만나기 힘든 풀과 꽃도 많아서 느낌이 색다르다. 또한 정상에는 깊게 패인 분화구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안쪽에 작은 봉우리가 솟아 있어 말발굽 형태를 띠고 있다. 오름 곳곳에는 화전민들의 숯가마터와 일본군의 진지 등 제주도의 비극적인 역사를 담은 유물도 잔존해 있다.

거문오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평일에는 하루에 100명, 주말에는 200명으로 탐방객의 수가 제한되며 개방 시간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이다. 화요일에는 들어갈 수 없다.

코스 선흘2리 노인회관 ▶ 오름 정상 ▶ 분화구 ▶ 수직굴 입구 ▶ 선흘2리 노인회관(2시간 30분 소요)

가는 법 제주 시내에서 성읍을 거쳐 표선의 제주민속촌 박물관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다. 오전 6시부터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주변 볼거리 만장굴, 김녕미로공원, 산골부리



사진/승우여행사 제공



사진/승우여행사 제공